

협의회 동정

CALS 진흥을 위한 업계간담회

우리 협회의 한국 EDI 협의회 CALS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카멜리아룸에서 CALS 진흥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이상희 대회장(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홍석현 조직위원장(중앙일보 사장) 등 40여명의 업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상산업부의 CALS 활성화 계획, 정보통신부의 CALS연관 사업에 대한 설명, CALS업계의 건의와 이에 따른 간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통상산업부의 서사현 국장은 CALS를 어떻게 민간기업에 안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CALS 산업연구개발조합 설립, 민간협의체 형태의 CALS협회 설립, CALS 정책수립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으며, 정보통신부 이성해 국장은 한국 EDI협의회의 CALS분과위원회를 협회 중심으로 확대 추진할 것과 CALS시범사업 실시, 국제행사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CALS 연관사업으로 밝혔다.

또한 업계 의견으로는 LG-EDS시스템의 김영태 사장이 각종 시스템화는 업계의 과제이며, 수요, 공급, 정부, 사회 각 층의 이해상충 조정의 어려움을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SDS의 남궁석 사장은 CALS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의 계획, 추진은 민간기업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와 논의사항은 앞으로 한국 EDI협의회 CALS분과위의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멀티산업 활성화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우리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의는 지난 9월 12일 타워호텔에서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친조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부단장, 멀티미디어협의회 측의 산학연 각계 전문가, 협회 신범식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멀

티미디어 산업의 등장이 관련산업의 융합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우리 정보산업이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자립기술 확보로 산업발전을 유도하여 정보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멀티미디어화 촉진을 위한 멀티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보급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려온 멀티미디어협의회를 산업기반 조성 및 멀티미디어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심의·의결기구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협의회 활동지원 및 의결사항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되어 있다. 또 산학연관, 언론, 방송, CATV, 통신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실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 홍보교육, 법제도, 기술, DB, 영상, 그래픽·

CALS EXPO '95 컨퍼런스 및 전시회 안내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95. 10. 23~26일 4일간 CALS EXPO '95가 개최된다. "미래를 향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게 되는 CALS EXPO'95는 기술 및 표준을 통해 통합되어 가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관련된 CALS의 역할과 이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CALS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CALS EXPO '95는 컨퍼런스와 전시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최는 CALS Industry Steering Group이다. 우리협회는 이 행사정보를 회원사에게 안내하고 있다. (전화 5131-122)



▲ 우리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는 지난 9월 12일 “멀티미디어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애니메이션, 타이틀, 언론·출판, 인터넷, 게임분과 등 10여개 분과를 설치키로 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는 이달중 현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위원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발기인 대회를 거쳐 10월중 발족하기로 추진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와 멀티미디어협의회는 '96년도 사업으로 멀티미디어정보서비스센터(MISC)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멀티미디어 제품 개발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멀티미디어 제품의 사용 권장, 홍보, 보급을 위해 멀티미디어 제품 등록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멀티미디어협의회 회원사들과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이 발표한 '초고속

관련 기술·시스템 국산화 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산학연의 관련기관으로부터 개발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CALS KOREA '95 준비회의 개최

우리협회 한국 EDI 협의회는 CALS KOREA '95 행사를 앞두고 지난 8월 세 차례의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CALS KOREA '95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들 회의는 김규수 분과 위원장, 김철환 국방대학원 교수, 한태인 협회 부장, 권영돈 인터콤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준비회의에서는 CALS 행사 안내장 제작, 비디오 제작, CALS 행사 지원 업체와의 오찬 개최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으며, 국내외 전시업체와의 접

촉 및 결정, 각 매체에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와 중앙일보의 구체적 역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사고 게재, 기획칼럼 게재, 좌담회 게재등의 안이 추진방향으로 협의되었으며 전자신문과의 기획기사 연재 건이 협의되었다.

또한 주요 전산기기 및 설비업체의 전시회 참여 독려방안과 행사 지원업체와의 오찬건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한국 EDI협의회 CALS 행사지원논의

우리협회 한국EDI협의회는 지난 8월 7일 김대규 EDI협의회 위원장과 신범식 협회 부회장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EDI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CALS KOREA '95 행사 준비 현황점검과 CALS KOREA '95 행사 지원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진행되었는데 김규수 CALS 분과위원장이 CALS KOERE '95 컨퍼런스 와 전시회 준비상황,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활동, PASOL 행사 연계 활동 등을 보고했으며, 일본의 CALS PACIFIC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CALS KOREA '95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가능 전시업체에 대한 논의와 행사에 대한 한국EDI협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들을 협의했다. ●